

KOSDAQ | 제약과생물공학

지씨지농 (340450)

여기 임상유전체와 액체생검은 공상과학이 아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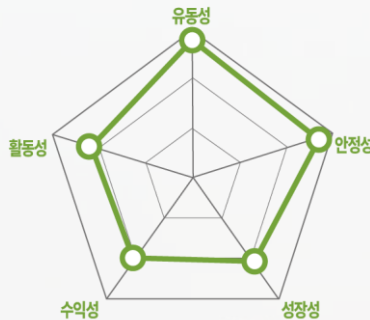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산과 검사, 암 검사, 검진 검사, 유전체검사사로 이어지는 생애전주기 임상유전체분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액체생검 전문 기업
- G-NIPT는 국내 NIPT 시장 내 높은 점유율과 반복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제공하고, 아이캔서치는 B2B 건강검진 채널 확대 로 고성장 검진 플랫폼으로 부상 중
- PANC-CERCH는 회장암 SCED 기반 미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3분기 임상 데이터, FDA BDD 신청 및 승인, 보험코드 등재 여부가 중장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 변수
- 2026년 매출액 373억원, 영업이익 32억원을 전망하며, 검사 물량 확대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2025년 3.9%에서 2026년 8.7%로 개선될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 PBR은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지씨지놈 (340450)

Analyst 김승준, PharmD edwardsj@kirs.or.kr

RA 이금민 km.lee@kirs.or.kr

KOSDAQ

제약과생물공학

임상유전체분석 및 액체생검 기반 생애전주기 진단 플랫폼 기업

동사는 2013년 설립된 임상유전체분석 및 액체생검 전문 기업으로,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기반으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제공.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산과 검사, 암 검사, 검진 검사, 유전희귀검사로 구성되며, 대표 제품으로는 비침습 산전검사 G-NIPT, AI 기반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 아이캔서치, 난소암 PARP 억제제 치료 선별을 위한 GreenPlan HRD, 유전희귀질환 진단 패널 등이 있음.

G-NIPT & 아이캔서치 성장과 PANC-CERCH 미국 진출 모멘텀

동사의 G-NIPT와 아이캔서치의 동반 성장, 그리고 PANC-CERCH를 통한 미국 조기암 진단 시장 진출 모멘텀이 긍정적. G-NIPT는 국내 NIPT 시장 내 높은 점유율과 산부인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아이캔서치는 액체생검과 AI 기반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결합해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 특히 아이캔서치는 병원 및 검진센터뿐 아니라 대기업 임직원 건강검진 채널로 확산되며 반복형 B2B 검진 매출 모델로 발전 중. 여기에 취창업 단일암 조기 선별검사 PANC-CERCH는 미국 SCED 시장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FDA BDD 신청, 임상 종료, 향후 FDA 승인 및 보험코드 등재가 순차적으로 확인될 경우 동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 모멘텀.

2026년 본업 이익 체력 강화 및 영업레버리지 본격화 전망

동사의 2026년 실적은 매출액 373억원(+18.3% YoY), 영업이익 32억원(+162.2% YoY), 지배주주순이익 42억원(+4.2% YoY)으로 전망. 2025년 흑자전환을 통해 유전체 검사 사업의 영업레버리지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2026년에는 G-NIPT의 안정적 검사 건수 증가와 아이캔서치의 거래처 및 검사 물량 확대가 본격화되며 본업 이익 체력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예상. 검사 물량 증가에 따라 장비, 인력, 분석 인프라 등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은 2025년 3.9%에서 2026년 8.7%로 개선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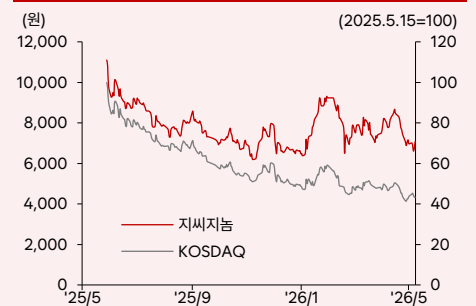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241	273	259	315	373
YoY(%)	30.4	13.2	-5.1	21.8	18.3
영업이익(억원)	-32	2	-12	12	32
OP 마진(%)	-13.4	0.6	-4.8	3.9	8.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8	-6	-13	40	42
EPS(원)	-233	-30	-69	184	178
YoY(%)	적전	적지	적지	흑전	-3.4
PER(배)	N/A	N/A	N/A	37.0	38.0
PSR(배)	0.0	0.0	0.0	4.7	4.3
EV/EBITDA(배)	N/A	1.5	N/A	30.5	21.1
PBR(배)	0.0	0.0	0.0	2.1	1.9
ROE(%)	-16.5	-2.1	-4.3	7.3	5.2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5/22)	7,100원
52주 최고가	11,100원
52주 최저가	6,220원
KOSDAQ (5/22)	1,161.13p
자본금	118억원
시가총액	1,679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4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9억원
외국인지분율	3.33%
주요주주	녹십자 외 16인 42.60%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8.7	14.1	
상대주가	-7.2	-15.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기업 개요 및 연혁

국내 및 글로벌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생애전주기
임상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동사는 2013년 설립된 임상유전체분석, 액체생검 전문 기업으로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돕는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병원 및 파트너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로 상장했다.

동사의 제품군은 산과 검사, 암 검사, 건강검진, 유전희귀검사 4가지로, 345개의 임상유전체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애전주기에 걸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주요 서비스로는 비침습적 산전 태아 염색체 이상 선별검사 'G-NIPT', AI 기반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 '아이캔서치(ai-CANCERch)'가 있다.

국내 사업의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GC녹십자의료재단과 지씨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강한 영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1,000여곳의 병원 영업 유통망으로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전산 시스템을 연동해 운영 비용 절감과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했다. 대형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패널 검사 서비스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사업의 경우 현지 Commercial Lab, 유통 중개사 혹은 병원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주요 기업과의 수출 TSO(Test Send Out),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해 판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2023년 GC 그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역할을 해주고 있는 GC Labtech(미국, 아이캔서치), MP Group(태국, 지놈헬스)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22개국 53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해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사업 역시 GC 그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25년 GC Lymphotec(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시장 전용 제품을 출시하며 현지 시장 진출을 시작하고 있다.

동사는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타깃 질환 및 선별 암종 확대와 미국시장 본격화를 통한 성장동력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유전체검사서비스 외에도, 국내외 제약사 및 CRO와 협력해 임상시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가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연혁

2013~2020	2021~2022	2023~
<p>2013.07 법안 설립</p> <p>2013.08 제 1차 유상증자 (21억원)</p> <p>2013.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p> <p>2015.04 비침습적 산전 선별 검사 'G-NIPT' 출시</p> <p>2015.07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A등급 획득</p> <p>2015.10 제 2차 유상증자 (15억원)</p> <p>2016.03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 시범사업 기관 선정</p> <p>2017.02 미국병리학회 CAP 인증 확보</p> <p>2017.04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NGS 임상검사실 인증 획득</p> <p>2019.12 제 3차 유상증자 (40억원)</p> <p>2020.08 핵심기술 G-PrEMA 관련 특허(Fragment Distance) 출원</p> <p>2020.11 핵심기술 G-PrEMA 관련 특허(GAVDL) 출원</p> <p>2020.12 전환사채 발행 (200억원)</p> <p>2020.12 제 4차 유상증자 (100억원)</p>	<p>2021.05 핵심기술G-SeNTInEL 관련 특허(FEMS) 출원</p> <p>2021.10 G-SeNTInEL 요소기술 RMD 개발 착수</p> <p>2022.03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글로벌 혁신대전 '10대 등대기업 선정</p> <p>2022.04 『그린플랜 HRD』 국내 최초 HRD 신의료기술 승인</p> <p>2022.04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 선정</p> <p>2022.04 사명변경(녹십자지능 → 지씨지놈)</p> <p>2022.04 AACR 2022, '인공지능(AI) 기반 액체생검 기술' 발표</p> <p>2022.06 핵심기술 G-SeNTInEL 관련 특허(RMD) 출원</p> <p>2022.09 탈모 리스크스크린 출시</p> <p>2022.10 핵심기술 G-PrEMA 관련 특허(Fragment Distance) 등록</p> <p>2022.12 융인지점 중추 및 기업부설연구소 이전</p> <p>2022.12 전환사채(120억원) 보통주 전환</p>	<p>2023.03 미국 Genece Health 액체생검 기술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 체결</p> <p>2023.04 G-SeNTInEL 기술 관련 논문 Nature Communications(IF: 14.7) 학술지 논문 게재</p> <p>2023.09 AI 알고리즘 기반 다중암 조기 선별 검사 '아이캔서치' 출시</p> <p>2023.10 핵심기술 G-PrEMA 관련 특허(사각화 기술) 등록(GAVDL)</p> <p>2023.11 건강검진 유전자검사 '지놈헬스, 태극 기술수출</p> <p>2024.01 무세포 핵산의 메틸화 마커 검출 방법, 액체생검 관련 특허 출원</p> <p>2024.02 세포유리 핵산 단편 전장 유전체 시퀀싱 데이터에서 실험 배치 효과를 보정하여 암 환자의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액체생검 관련 특허 출원</p> <p>2024.03 핵심기술 G-PrEMA 관련 기술(Fragment Distance) 특허 호주 등록</p> <p>2024.04 핵심기술 G-PrEMA 관련 기술(사각화 기술) 특허 호주 등록(GAVDL)</p> <p>2024.04 AACR 2024, G-SeNTInEL 기술관련 2편 발표</p> <p>2024.08 G-PrEMA 관련 특허(사각화 기술) 일본 등록(GAVDL)</p> <p>2024.12 G-SeNTInEL 관련 특허(RMD) 유럽 출원</p> <p>2024.11 전환사채(80억원) 보통주 전환</p> <p>2024.12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 A등급 획득</p> <p>2025.03 AI 기반 액체생검 폐암 검출 알고리즘 연구 논문 국제 학술지 'Cancer Research'에 게재</p> <p>2025.04 일본 내 '아이캔서치' 출시</p> <p>2025.06 코스닥 시장 상장</p> <p>2025.10 일본 암 학술대회(JSCO) 참가, '아이캔서치' 소개</p>

자료: 지씨지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1. 산과 검사: G-NIPT, 국내 산전 유전체 검사(2025년 기준 매출 비중: 26.8%)

산과 검사 사업은 G-NIPT를 중심으로 높은 안전성, 정확도, 누적 레퍼런스, 산부인과 네트워크 역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반복 매출과 현금창출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캐시카우 사업

동사의 산과 검사 사업은 비침습적 산전 염색체 이상 선별검사인 'G-NIPT'가 대표적인데, 'G-NIPT'는 임신부 혈액 내에 존재하는 태반 유래 태아 cfDNA(cell-free DNA)를 분석해 태아의 염색체 이상 가능성을 선별하는 검사로, 기존 양수검사와 같은 침습적 검사 대비 안전성이 높고, 기존 1차&2차 생화학적 혈액검사 대비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산전 검사 시장 내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G-NIPT'는 임신 10주 이후 산모 혈액을 이용해 21번, 18번, 13번 삼염색체증뿐 아니라 성염색체 이수성, 미세결실 또는 중복, 전 염색체 이상까지 선별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검사다.

태아에서 21번, 18번, 13번 염색체에서 2개가 아닌 3개의 염색체가 발견된 경우 염색체 이상 질환이 발생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 3개(Trisomy* 21)

에드워드 증후군
18번 염색체 3개(Trisomy 18)

파타우 증후군
13번 염색체 3개(Trisomy 13)

정상 핵형, 염색체 23쌍

* Trisomy(삼염색체): 2개의 염색체가 짝지어 있지 않고 3개의 염색체가 함께 있는 상태

자료: 지씨지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술 측면에서 G-NIPT는 국내 산전 검사 시장에서 동사의 레퍼런스를 축적해 온 대표 제품으로, 2015년 국내에 출시한 후 20만명 이상 성능 평가, 논문으로 검증된 신뢰성, 양성 진단 시 정밀 진단을 위한 후속 검사 보유 등을 핵심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산전 검사는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산부인과 네트워크, 검사 결과 해석 역량, 검사 후 상담

및 추가검사 프로세스까지 요구되는 영역이기에 신규 경쟁자가 단기간 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진입장벽이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산과 검사 사업은 동사의 **안정적 매출 기반이자 브랜드 신뢰도 형성의 핵심**으로 활약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진단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통상 신기술 파이프라인의 성장성에 의해 평가받지만, 실제 사업 안정성은 반복 검사 수요와 병원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G-NIPT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사의 현금창출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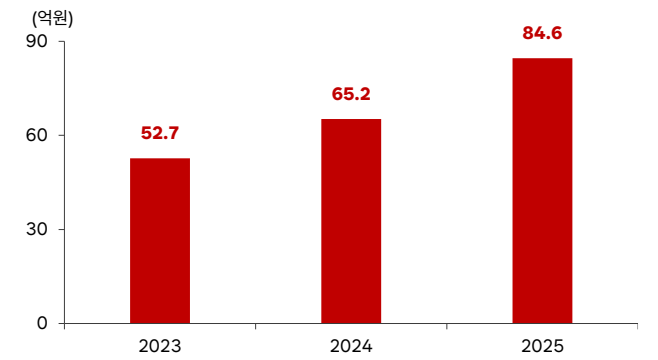
G-NIPT, 산과 검사

비침습적 산전 태아 염색체 이상 선별검사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과 검사 사업 매출 추이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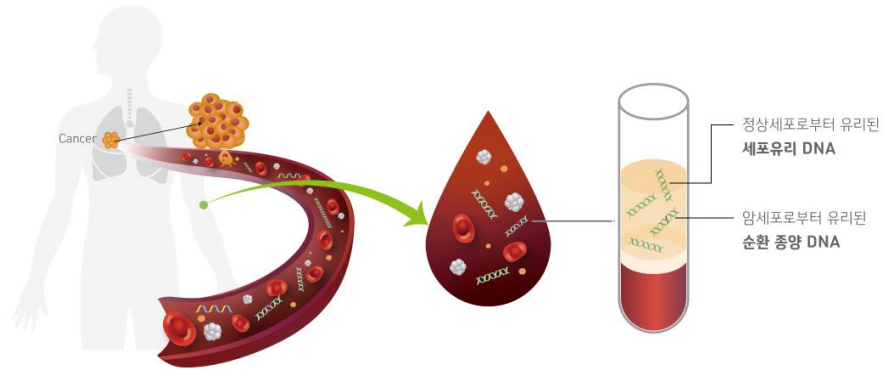
동사의 **검진 검사 사업은 아이캔서치를 중심으로 액체생검과 AI 기반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결합해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국내외 출시와 거래처 및 검사 건수 확대를 통해 고성장 사업으로 부상중**

2. 검진 검사: 아이캔서치, AI 기반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 (2025년 기준 매출 비중: 18.5%)

동사의 검진 검사 사업은 '아이캔서치(ai-CANCERCH®)'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아이캔서치'는 혈액 기반 액체생검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한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료, 한 번의 채혈을 통해 다양한 암종의 존재 가능성을 비침습적으로 예측하는 서비스다. '아이캔서치'는 혈액에서 암세포 유래 cfDNA를 추출한 뒤, 동사가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현재 암이 존재할 가능성을 예측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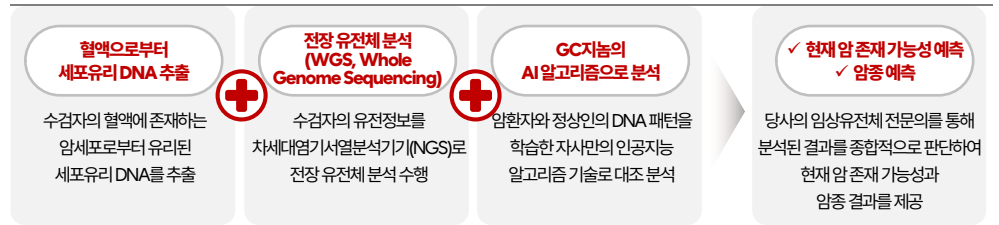
'아이캔서치'의 핵심 차별점은 단일 바이오마커가 아닌 전장유전체 기반 cfDNA 정보와 AI 분석역량의 결합에 있는데, '아이캔서치'는 zero-bias 유전체 서열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CNN(Convolution Neutral Network), MLP(Multi-Layer Perception), Transformer, MoE(Mixture of Experts) 등 다양한 AI 모델을 적용해 돌연변이, 복제수, cfDNA 패턴 및 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한다. 이는 기존 혈액 종양표지자 검사 대비 더 넓은 암종 커버리지와 조기암 탐지 가능성을 지향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번에 다양한 암종을 소량의 혈액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 아이캔서치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아이캔서치 검사 진행 과정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상용화 현황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2023년 9월 국내 출시 후 2025년 4월에는 일본 출시가 이루어졌으며, 10종 암종을 대상으로 상용화 되고 있다. 대상 암종은 폐암, 대장암, 간암, 식도암, 췌장암, 담도암, 난소암, 유방암, 위암, 두경부암이다. 또한 동사는 2024년 35개 거래처에서 2025년 51개 거래처를 추가했고, 2026년에는 80개 이상 거래처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및 검진센터 중심으로 레퍼런스가 확대되고 있는 현황이고 실제로 '아이캔서치' 검사 건수는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5,100건으로 증가하며, 동사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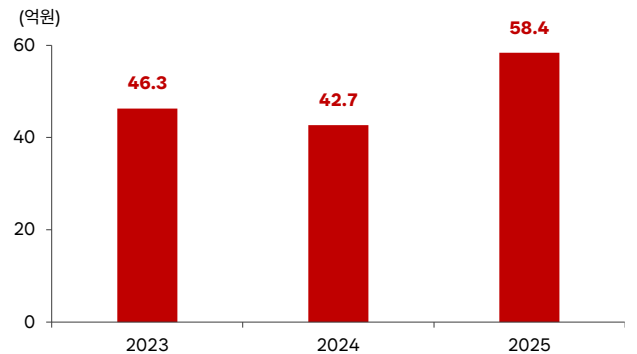
아이캔서치, 검진 검사

AI 기반 다종암 조기 선별검사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검진 검사 사업 매출 추이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사의 암 검사 사업은
GreenPlan HRD를 중심으로
난소암 PARP 억제제 치료
선별이라는 명확한 임상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 매출을 창출하고,
TBx/LBx 등 정밀종양학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한 사업부

3. 암 검사: GreenPlan, 정밀종양학 기반 동반진단 포트폴리오 (2025년 기준 매출 비중: 37.4%)

동사의 암 검사 사업은 정밀종양학 기반 유전체 검사 포트폴리오로 구성되며, 그중 'GreenPlan® HRD'는 난소암 환자의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 치료 대상 선별을 위한 핵심 검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RD(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는 DNA 이중가닥 손상 복구 경로 중 하나인 상동재조합 복구 기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PARP 억제제는 이러한 HRD 상태의 종양에서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어, 난소암 치료 전략에서 HRD 검사는 치료제 선택과 환자 선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암 치료 패러다임이 조직학적 진단 중심에서 분자진단 기반 치료 선택으로 이동하면서, 암 유전체 검사는 치료 의사결정의 필수 도구로 편입되고 있는데, 특히 난소암은 BRCA(BReast CAncer gene) 변이, HRD 상태, PARP 억제제 유지요법 등 분자진단 기반 치료 전략이 임상 현장에서 이미 정착된 대표 암종이다. 'GreenPlan HRD'는 이러한 정밀의료 흐름에 대응하는 제품으로, 동사의 암 검사 포트폴리오 내에서 임상적 필요성과 상업적 수요가 모두 존재하는 영역에 위치한다.

동사의 암 검사 사업 부문은 다른 주요 사업부 중 가장 큰 매출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산과 검사나 검진 검사 대비 성장률은 낮지만, 현재 회사 매출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품 포트폴리오는 'GreenPlan HRD' 외에도 'GreenPlan TBx(조직생검)/LBx(액체생검)' 등 고형암 환자의 유전자 전문 분석 및 패널 진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암 진단, 치료, 모니터링 전주기 확장 전략의 기반이 되고 있다.

기술 경쟁력 차원에서 'GreenPlan HRD'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동사의 'GreenPlan HRD'를 중앙 조직에서 HRD 유무를 NGS로 검사하는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승인 HRD 검사이다. 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내 난소암 환자에게 합리적인 비용과 빠른 결과 제공이 가능하고,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검사 결과 소요기간, 조직 검체 품질, 비용, 보험 적용 여부, 치료 시작 시점과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산화된 검사 플랫폼은 임상 도입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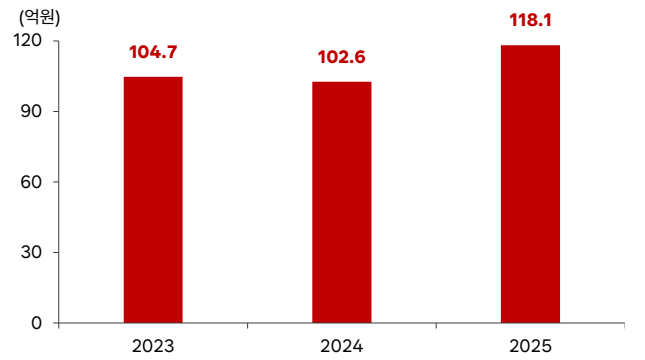
이처럼 동사의 암 검사 사업은 현재 매출 기반과 미래 정밀의료 확장성을 동시에 보유한 사업부이고, 'GreenPlan HRD'는 이미 임상적 필요성이 명확한 난소암 PARP 억제제 치료 선별 영역에 위치해 있어 상업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 TBx/LBx 포트폴리오와 결합될 경우 정밀종양학 플랫폼으로 확장될 여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암 검사 사업 또한 동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암 유전체 검사 서비스 포트폴리오

비유전성 암		혈액암	유전성 암
고형암	액체생검		
조직생검	액체생검	골수(BM), 혈액(Buffy coat)	혈액(Buffy coat)
조직(Tissue)	혈액(Plasma)		
그린플랜® TSG	그린플랜® Solid tumor Lbx	그린플랜® Hemo	그린플랜® Hereditary
난소암 환자의 주요 표적치료제인 PARP 억제제 처방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	고형암 환자의 유전적 진단, 치료 그리고 예후를 확인하기 위한 액체생검 검사	혈액암 환자의 유전적 진단, 치료, 그리고 예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암 환자의 유전적 진단, 질병 예방, 그리고 가족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그린플랜® Solid tumor TBx		Ig/TCR Rearrangement	
고형암 환자의 유전적 진단, 치료 그리고 예후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생검 검사		림프구 증식성(비정상) 림프관 환자의 미세환경질량 감지 및 재발 모니터링 검사	

자료: 지씨지놈,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암 검사 사업 매출 추이



자료: 지씨지놈,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사의 유전체 검사 사업은 고도화된 유전체 분석 기술과 임상 해석 역량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진단 수요에 대응하며, 병원 네트워크와 전문성 측면에서 동사의 유전체 진단 플랫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사업부

4. 유전체검사: 유전체 패널, 고난도 해석 역량이 요구되는 전문 진단 사업 (2025년 기준 매출 비중: 17.1%)

동사의 유전체검사 사업은 유전성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NGS 패널 검사와 CMA(Chromosomal MicroArray), DGS(Diagnostics Genome Sequencing), TES(Targeted Exome Sequencing), WES(Whole Exome Sequencing), Long-Read 기반 반복서열 질환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귀질환은 질환별 환자 수는 제한적이지만, 진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유전적 원인 규명이 치료 방향 결정과 가족 상담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희귀질환의 약 80%가 유전성 질환이며, 50%가 소아 환자인데, 동사는 진단되지 않은 희귀질환 환자에게 적합한 검사와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유전질환 검사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유전체검사의 핵심은 임상 해석 역량에 있는데, 희귀질환은 원인 유전자와 표현형 간 상관관계가 복잡하고, 동일 유전자 변이라도 임상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플랫폼의 성능뿐 아니라 변이 필터링, 병적 변이 우선순위 결정, 임상 표현형과의 매칭, 전문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동사는 질환 관련 변이 필터링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패널 특화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있고, 전장유전체 기반 DGS와 Long-Read 기반 반복서열 질환 패널검사 등 고도화된 진단 옵션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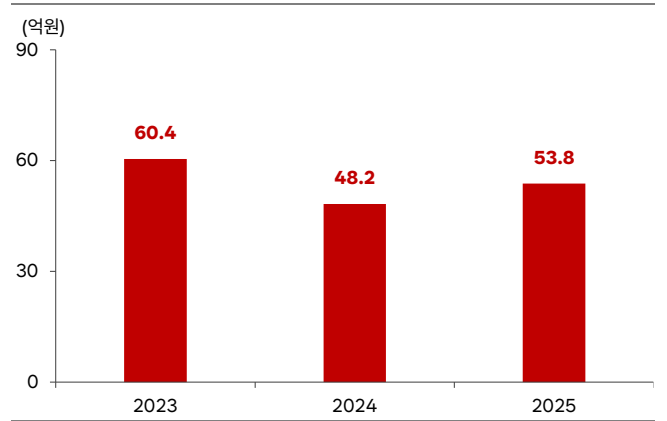
유전체검사는 안정적 병원 채널과 전문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B2B 의료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타 검사나 검진처럼 대규모 일반 소비자 수요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진단 난도가 높고 결과 해석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검사기관의 신뢰도와 레퍼런스가 중요하다. 유전체질환 패널은 검사 건수 측면에서 대형 매출 제품이 되기는 어렵지만, NGS 분석, 변이 해석, 임상 데이터 축적, 병원 네트워크 측면에서 동사의 기반 역량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특히 산과 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소견의 후속 평가, 소아, 신경, 대사 질환 진단, 가족 유전 상담 등과 연결될 수 있어, 동사의 전체 유전체 진단 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완적 시너지를 형성해주고 있는 사업부이다.

유전희귀질환 유전체 검사 서비스 포트폴리오

<p>표적 엑솜 시퀀싱 Targeted Exome Sequencing, TES</p>	<p>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의 진단을 위해 수십~수백여 개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 검출가능변이 SNV, Indel, CNV</p>
<p>전장 엑솜 시퀀싱 Whole Exome Sequencing, WES</p>	<p>약 20,000여 개 이상의 전체 인간 유전자에서 엑손 부위 모두 검사 검출가능변이 SNV, Indel, CNV</p>
<p>진단용 전장 유전체 시퀀싱 Diagnostics Genome Sequencing, DGS</p>	<p>약 20,000여 개 이상의 전체 인간 유전자에서 엑손과 인트론을 포함한 약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전장 유전체를 검사 검출가능변이 SNV, Indel, CNV, SV, NCV</p>
<p>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Chromosomal Microarray, CMA</p>	<p>약 20,000여 개 이상의 전체 인간 유전자에서 엑손 부위 모두 검사 검출가능변이 SNV, Indel, CN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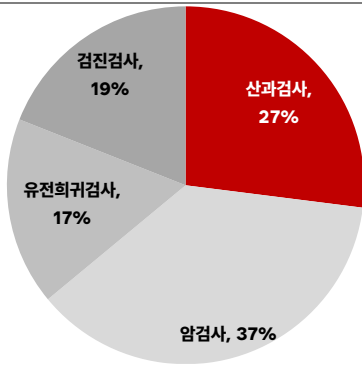
자료: 지씨지놈,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전희귀검사 사업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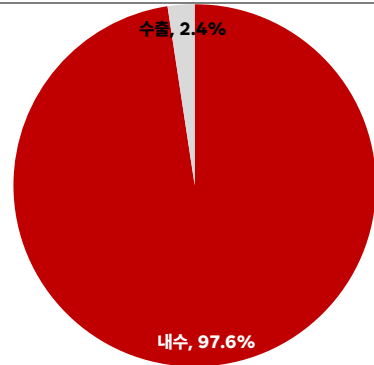
자료: 지씨지놈,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별 매출 비중 (2025년 기준)



자료: 지씨지놈,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내수/수출 매출 비중 (20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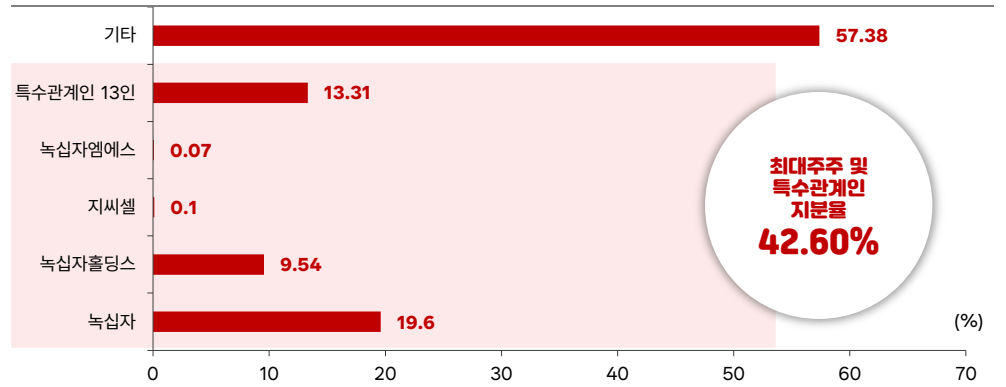
자료: 지씨지놈,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주주 구성

2026년 3월 31일 기준 지씨지놈의 최대주주는 녹십자로, 총 4,636,500주를 보유해 19.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외에도 지주회사인 녹십자홀딩스가 2,256,656주(9.54%), 지씨셀이 22,571주(0.10%), 녹십자엠에스가 16,928주(0.07%)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 및 계열사임원 13인의 지분 3,143,191주(13.31%)를 모두 합산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총 10,075,846주로, 전체 주식수의 42.60%에 해당한다. 그 외 우리사주 및 자사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2026년 6월 10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남에 따라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대상 주식수는 10,659,983주로 총 발행주식수의 45.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물량(약 70%)임에 따라 실제 시장 출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오버행 리스크로 보기에는 과도한 우려로 판단된다.

주주 구성(2026.03.31)



자료: 지씨지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시장 산업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시장은 MCED의 대규모 검진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FDA 승인, 보험급여, 임상적 유용성 입증 부담이 큰 가운데, 허가 및 상업화 경로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SCED가 웨장암 등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종을 중심으로 차세대 경쟁축으로 부상 중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시장은 기존 조직검사와 영상검사 중심의 암 진단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혈액 내 cfDNA, ctDNA, DNA methylation, copy number variation, fragmentation pattern 등 다양한 유전체 신호를 통합 분석해 암을 조기에 선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액체생검 기술은 단일 종양표지자에 의존하던 기존 혈액 검사의 한계를 넘어, NGS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암의 존재 가능성과 암종 기원을 예측하는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크게 MCED(Multi-Cancer Early Detection)와 SCED(Single-Cancer Early Detection)라는 두 가지 상업화 경로로 나뉘고 있다. MCED는 한 번의 혈액검사로 여러 암종을 동시에 선별할 수 있어 건강검진 시장과 결합될 경우 TAM(Total Addressable Market)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MCED는 개념적 매력도와 달리 아직 제도권 상업화 난이도가 높는데, 현재 FDA가 승인한 MCED 검사는 없으며, 전문학회나 USPSTF(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차원의 암 선별검사 권고, 보험급여 적용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MCED가 대중적 검진 시장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순 성능 지표뿐 아니라 후속 진단 프로토콜, 암종별 임상적 유용성, 궁극적으로는 late-stage cancer 감소 또는 사망률 감소와 같은 데이터적 근거가 아직은 더 필요한 현황이다.

실제로 대표 MCED 기업인 GRAIL(미국)의 최근 Galleri 사례는 MCED 시장의 상업화 난이도를 보여주었는데, Galleri는 50종 이상의 암종을 한 번의 혈액검사로 선별하는 대표 MCED 제품으로 시장 기대를 받았으나, 2026년 NHS-Galleri 연구에서 stage III/IV cancer 감소라는 주평가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발표했다. GRAIL은 stage IV cancer 감소와 조기암 진단 증가 등 긍정적 신호들을 보여왔지만, 주평가지표 미충족은 MCED가 보험급여와 대규모 검진 편입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허들이 높다는 점을 정면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배경이 존재하다 보니, 시장은 MCED와 병행해 SCED 중심의 단계적 상업화 전략으로도 확장되고 있는데, SCED는 특정 암종 하나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MCED 대비 TAM은 작지만, 임상적 메시지와 허가 및 보험 전략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암종에서 표준 선별검사가 부재하거나 기존 검사 순응도가 낮은 경우, 혈액 기반 SCED는 보다 현실적인 상업화 경로를 가질 수 있고, 특히 FDA 승인, 보험코드 등재, 임상 가이드라인 편입 등을 암종별로 추진할 수 있어, 대규모 MCED보다 허가 승인 및 상업화 전략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MCED와 SCED의 상업화 전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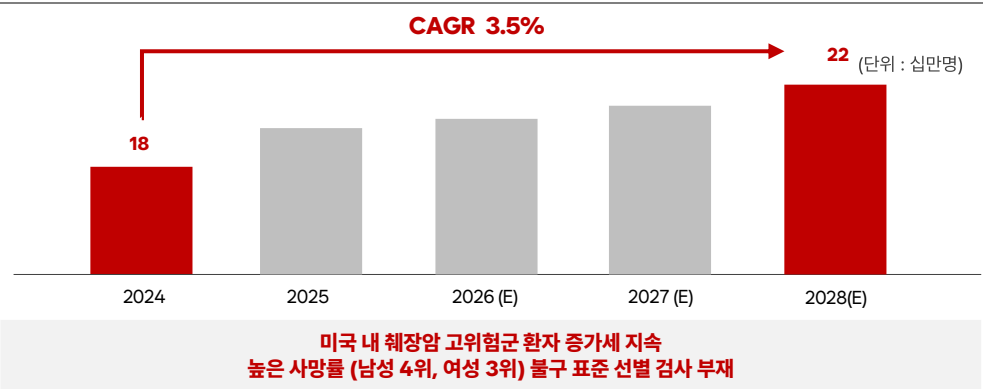
	MCED	SCED
개념	한 번의 혈액검사로 여러 암종 동시 조기 선별	특정 암종 하나를 조기 선별
장점	건강검진 시장과 결합 시 큰 TAM 확보 가능	암종별 임상, 허가, 보험 전략이 명확
한계	암종별 민감도 편차, 위양성 후속검사 복잡성	타깃 암종별 시장 규모 제한
핵심 허들	임상적 유용성, 보험급여, 후속진단 프로토콜	성능 검증, 타깃 환자군 정의, 보험코드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CED 상업화 사례로는 대장암 영역이 가장 앞서 있는데, Guardant Health(미국)의 'Shield'는 2024년 FDA 승인을 받은 혈액 기반 대장암 선별검사로, 평균위험군 45세 이상 성인의 대장암 선별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액체생검 기반 SCED가 FDA 승인과 Medicare coverage 논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이다.

SCED의 다음 주요 타깃으로는 췌장암이 주목받고 있는데, 췌장암은 조기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표준화된 조기 선별검사가 부재해 진단 시점이 늦은 대표 암종이다. ACS(American Cancer Society)는 2026년 미국에서 약 67,530명의 췌장암 신규 환자와 52,7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췌장암이 미국 전체 암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암 사망의 약 8%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6년 성별 주요 암 사망 추정 기준으로 췌장암은 남성 4위, 여성 3위권의 높은 사망 부담을 가진 암종으로 분류했다. 현재 USPSTF는 무증상 일반 성인에 대한 췌장암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데, 낮은 일반 인구 유병률, 후보 선별검사의 불확실한 정확도, 위양성에 따른 위해 등을 이유로 일반 인구 대상 screening의 benefit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USPSTF는 가족성 췌장암, 유전성 증후군 등 고위험군은 해당 권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현재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정확하고 검증된 biomarker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고위험군 대상 혈액 기반 SCED가 임상적 미충족 수요를 채울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미국 내 췌장암 고위험군 환자 추이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췌장암 SCED 경쟁 기업으로는 현재 Singlera Genomics(미국), ClearNote Health(미국), 지씨지놈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볼 수 있는데, Singlera Genomics는 DNA methylation 기반 'PDACatch'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PDACatch'는 고위험군 PDAC(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조기 발견을 위해 FDA BDD(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을 받은 상태다. ClearNote Health는 'Avantect' Pancreatic Cancer Test를 개발 중이며, 2025년 영국 적합성 평가 UKCA(UK Conformity Assessed) marking을 획득해 영국 내 상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의 지씨지놈의 'PANC-CERCH' 역시 췌장암 SCED 시장 진입을 겨냥한 파이프라인인데, 'PANC-CERCH'가 췌장암 환자 100명과 정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성능평가에서 민감도 95.0%, 특이도 95.6%, 조기암 Stage III 민감도 91.7%를 보여, Singlera Genomics의 'PDACatch', ClearNote Health의 'Avantect'와 비교 가능한 경쟁 구도로 개발이 되고 있다. 지씨지놈의 췌장암 조기진단 검사 미국 진출 전략은 2027년 FDA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시장은 MCED의 대규모 검진 시장 가능성과 SCED의 현실적인 허가 및 보험 전략이 병존하는 초기 성장 산업이다. MCED는 건강검진과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FDA 승인 제품이 없고 임상적 유용성 입증 부담이 큰데, 반면 SCED는 특정 암종에서 성능과 환자군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 초기 상업화 경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취약암은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표준 선별검사가 부재하고, 고위험군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조기진단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취약암 SCED에서 미국 FDA 승인 및 보험코드 등재에 성공하는 기업은 향후 미국 내 고위험군 선별검사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어, 액체생검 조기암 진단 산업 내 다음 단계의 핵심 경쟁 축이 되고 있다.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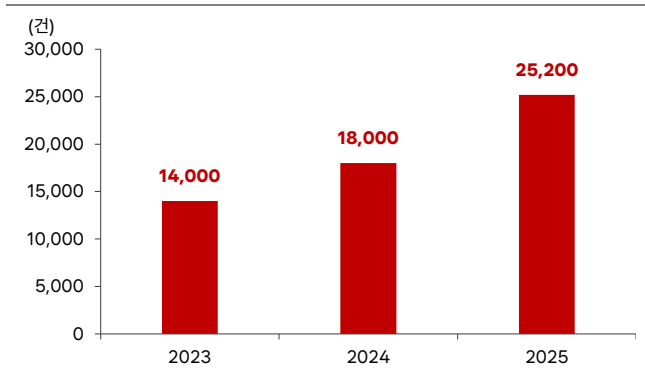
G-NIPT와 아이캔서치, 검증된 캐시카우와 고성장 검진 플랫폼의 결합

동사의 G-NIPT와 아이캔서치는 각각 국내 NIPT 시장 내 높은 점유율과 반복 수요 기반의 안정적 캐시카우, MCED 시장 개화와 대기업 B2B 건강검진 채널 침투에 따른 고성장 옵션으로 가능하며, 매출 성장과 영업레버리지 개선을 동시에 견인할 핵심 투자 포인트

동사의 'G-NIPT'와 '아이캔서치'가 동시에 성장하면서 실적 성장의 질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 우선 긍정적인데, 기존 유전체 진단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동사는 이미 상업화된 핵심 검사 제품의 물량 증가가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G-NIPT는 국내 산전검사 시장에서 검증된 반복 매출 기반을 제공하고, 아이캔서치는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 시장 개화와 B2B 건강검진 채널 확대를 통해 신규 성장축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따라서 동사의 투자 매력은 단순히 신규 기술 옵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출화되고 있는 두 개 핵심 제품이 각각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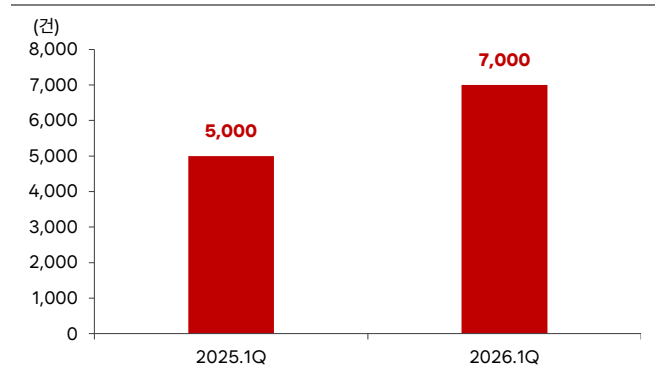
먼저 G-NIPT는 동사의 대표적인 Cash-Cow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G-NIPT는 산모 혈액 내 태반 유래 태아 cfDNA를 분석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스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이상을 선별하는 비침습 산전검사로, 임신 10주 이후 채혈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침습적 검사 대비 접근성과 안전성이 높다. 이와 연계되어 G-NIPT의 성장성은 이미 검사 건수로 확인되고도 있는데, G-NIPT 검사 건수는 2024년 1.8만건에서 2025년 2.52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출산율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전 정밀검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전체 NIPT 검사 건수가 작년 약 7만건 수준이었고, 이 중 약 2.5만건이 G-NIPT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사는 이미 의미 있는 시장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침투율 확대에 의한 성장성도 계속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출생아 수 반등, 30대 후반 이상 고령 산모 비중 증가, 임신부 검사 바우처 확대 등도 산전검사 접근성과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산 사회로 인한 수혜를 일부 보고 있기도 하다.

G-NIPT, 검사 건수 추이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G-NIPT, 검사 건수 추이 (25Q1 vs 26Q1)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이캔서치는 G-NIPT와 다른 성격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G-NIPT가 성숙 시장 내 점유율과 반복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 사업이라면, 아이캔서치는 아직 초기 개화 단계인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 시장을 겨냥한 고성장 비즈니스 모델이다. 아이캔서치는 혈액 10ml를 이용해 약 10종의 암을 조기 선별하는 액체생검 기반 MCED(Multi-Cancer Early Detection) 서비스로, 평균 민감도 84.5%, 특이도 94.5%를 보인다. 단일 종양표지자 기반 검사가 아니라 cfDNA의 돌연변이, 복제수, fragment pattern 및 size 정보 등을 AI 알고리즘으로 통합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

존 건강검진 내 종양표지자 검사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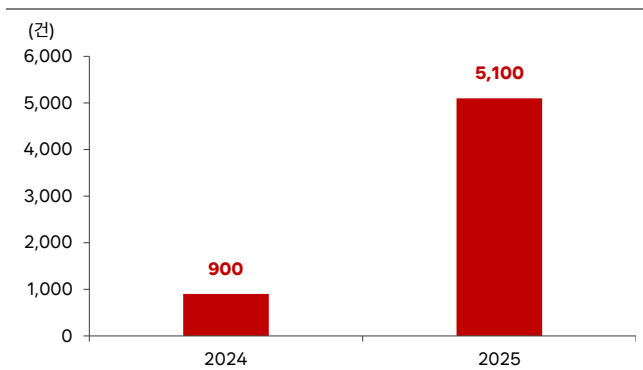
아이캔서치 기술의 경쟁력

	아이캔서치®	I사	G사	아이캔서치 특징점
출시국가 (출시일)	한국(2023.09) 일본(2025.04)	한국	미국(2021.06)	
데이터 생산 방식	저밀도 전장 유전체 시퀀싱	전장 메틸화 시퀀싱	표적 메틸화 시퀀싱	다양한 암 바이오마커 검출 및 높은 기술 확장성
샘플당 데이터 요구량/생산능력	10 Gb / 200 건	100 Gb / 20 건	12 Gb / 188 건	우수한 데이터 생산 능력
대상 암종 수	10 종	8 종	50 종	선별 수요 높은 주요 암 포함(폐/대장/간/췌담도/난소/식도)
필요 검체량	혈액 10 ml	혈액 20 ml	혈액 20 ml	검체 요구량 최소화 가능
검사소요일	7~14 일	14 일	10 일	빠른 *TAT
검사성능 (민감도/특이도)	84.5% / 94.5%	85.6% / 95.7%	51.5% / 99.5%	대규모 샘플로 검증된 성능
임상검체 검증 수	8,485 명	1,286 명	4,077 명	암환자 : 건강인 (1:3) 비율 검체 구성을 통해 성능 확인

자료: 지씨지능,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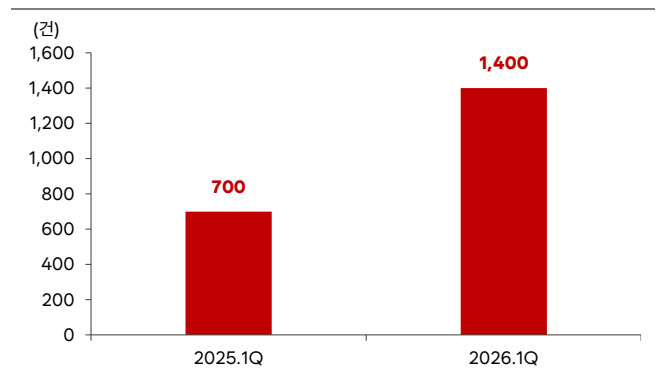
상업화 속도 역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아이캔서치 검사 건수는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5,100건으로 급증** 했으며,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 100%, 일반종합병원 40%에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이다. **삼성그룹 임직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공급 계약에 이어 LG그룹, 한수원, 기아, 대한항공과도 계약을 완료**하였고, 검사 건수 역시 1Q25 700건에서 1Q26 1,400건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캔서치가 단순히 병원 검사의 형태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건강검진 B2B 채널로 침투하고 있다는 점**인데, MCED 검사는 아직 공보험 기반 대중검진으로 확산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 상업화의 핵심은 프리미엄 건강검진, 대기업 임직원 검진, 상급 종합병원 및 검진센터 채널**이다. 이 관점에서 **삼성, LG, 기아, 대한항공, 한수원 등 대형 B2B 고객사 확보는 단순 거래 처 수 증가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한 번 기업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편입되면 매년 반복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임직원 선택을 상순에 따라 동일 고객사 내 검사 건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캔서치가 초기 마케팅성 매출이 아니라 **반복형 검진 매출 모델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항이다.

아이캔서치, 검사 건수 추이



자료: 지씨지능,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이캔서치, 검사 건수 추이 (25Q1 vs 26Q1)



자료: 지씨지능,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에 따른 실적 성장성 관점에서도 두 제품의 동반 성장은 영업레버리지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는데, 유전체 검사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검사 물량이 확보되면 장비, 인력, 분석 인프라의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매출 증가분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G-NIPT의 안정적 물량 증가와 아이캔서치의 고정장 램프업은 단순 매출 확대뿐 아니라 이익률 개선의 근거로도 충분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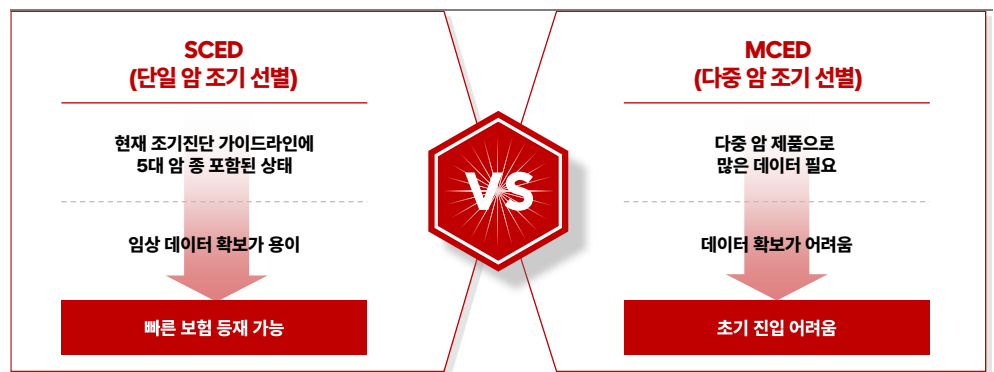
이처럼 G-NIPT와 아이캔서치의 조합은 동사를 단순 임상 유전체 검사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 아니라, **반복 검사 기반의 안정적 현금흐름과 조기암 검진 시장의 고성장 옵션을 동시에 보유한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G-NIPT는 국내 NIPT 시장 내 높은 점유율과 산부인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적 하방을 지지하고, 아이캔서치는 병원, 검진센터, 대기업 B2B 채널을 통해 성장 상단을 열고 있어,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2 **혜장암 조기진단 기반 미국 시장 진출 모멘텀**

PANC-CERCH는 혜장암 SCED로 미국 시장 진입을 노리는 파이프라인이고, 우수한 초기 성능, FDA 로드맵, Guardant Health 유통 파트너십이 기반이되는 중장기 투자 포인트

동사는 **혜장암 단일암 조기 선별검사 'PANC-CERCH'를 기반으로 한 미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 동사의 실적은 국내 G-NIPT, 아이캔서치, 암/유전체검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 변수는 미국 조기암 선별검사 시장 진입 여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사는 미국 시장에서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인 MCED로 바로 진입하기보다 **혜장암 단일암 조기 선별검사 SCED(Single-Cancer Early Detection)를 우선 타깃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현실성이 더 높아 보여 긍정적이다. MCED는 암종별 임상적 유용성 입증, 보험 등재, 후속진단 프로토콜 구축이 복잡한 반면, SCED는 개별 암종 단위로 FDA 승인 및 보험 등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초기 상업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 단일 암 조기 선별(SCED) 제품 출시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혜장암은 조기진단 공백이 큰 대표 암종인데, 평균위험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routine screening은 아직 주요 전문 단체에서 권고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 USPSTF(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역시 무증상 성인 대상 혜장암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력, 유전적 소인, 만성혜장염, 신규 발생 당뇨 등 고위험군에서는 조기 발견의 의학적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이에 따라 혜장암 혈액 선별검사의 현실적인 초기 시장은 일반 인구집단 전체가 아니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보조적 선별검사 시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관점에서 **혜장암**

은 대장암 및 폐암처럼 이미 표준 검진체계가 정립된 암종보다 경쟁 강도가 낮고, 표준화된 혈액 기반 조기 선별검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후발주자인 동사에게도 시장 선점 기회가 존재한다.

동사의 PANC-CERCH는 성능 지표 측면에서 투자자 관심을 끌 수 있는 초기 데이터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 **췌장암 환자 100명, 정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성능 평가에서 민감도 95.0%, 특이도 95.6%, 조기암 Stage I/II 민감도 91.7%를 기록했다.** 이는 Singlera Genomics(미국)의 'PDACatch', ClearNote Health(미국)의 'Avantect' 등 경쟁 제품 대비 높은 성능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물론 해당 수치는 동일 조건에서 수행된 head-to-head prospective trial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 차원으로만 고려해볼만 하지만, 췌장암 조기진단이라는 미충족 수요가 큰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 제품과 비교 가능한 수준의 성능 지표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은 **미국 진출 스토리의 출발점**으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미국 내 췌장암 스크리닝 경쟁기업 현황

구분	GC Genome	Singlera Genomics(미국)	ClearNote Health(미국)
제품	PANC-CERCH	PDACatch	Avantect
출시	-	2023	2023
검체수 (췌장암 / 정상인)	100 / 200	232 / 323	234 / 2,576
검사성능 (민감도 / 특이도)	95% / 95.6%	84% / 89%	68.3% / 96.9%
조기암 성능 (Stage I/2)	91.7% (11 / 12)	72% (52 / 69)	68.3% (28 / 41)

자료: 지씨지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개발 및 허가 신청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동사는 PANC-CERCH의 2026년 1분기 검체 모집을 완료했고, **2026년 3분기 미국 임상**을 종료하여, **4분기 미국 FDA 혁신의료기기 지정 BDD(Breakthrough Devices Designation)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 후 **2027년 FDA 승인, 2028년 보험코드 등재 및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FDA Breakthrough Devices Program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BDD 신청 또는 지정만으로 상업화 성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정 시 FDA와의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심사 프로세스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26년 3분기 미국 임상 데이터 결과 및 2027년 FDA 승인 여부**는 단기 투자 모멘텀으로도 기대해볼 수 있다.

아직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승인 이후 상업화 계획에서도 주목할만한 부분은 미국 내 유통 파트너십 계약건인데, 동사는 대장암 혈액 선별검사 'Shield'로 알려진 **Guardant Health(미국)와 이미 유통과 관련된 MOU를 체결한 상태**로, **FDA 허가만 완료된다면 바로 미국 내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동사가 자체 영업망을 구축하지 않고 이미 미국 내 liquid biopsy 상업화 경험을 보유한 대형 글로벌 파트너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면, FDA 승인 이후 상업화 초기 비용과 시장 침투 리스크를 일부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경쟁 환경도 최근 동사에게 유리하게 돌아서게 되었는데, GRAIL(미국)의 'Galleri'는 대표적인 MCED 제품이지만, 2026년 발표된 NHS-Galleri 연구에서 late-stage cancer 감소라는 주평가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MCED의 보험급여 및 임상적 유용성 입증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움을 보여준 사례인데, 반대로 동사처럼 미국 진출 전략으로 특정 암종, 특히 조기진단 공백이 큰 췌장암에 집중하는 SCED 전략은 대규모 MCED 시장을 한 번에

공략하는 접근이 아니라,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크고 표준 선별검사가 부재한 체장암에서 먼저 proof-of-market을 확보한 뒤 압중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PANC-CERCH는 단기 실적 기여보다는 중장기 밸류에이션 상승 투자 포인트 옵션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앞에서 설명한 미국 진출 전략과 마일스톤들이 순차적으로 확인될 경우, 동사는 국내 임상유전체 검사 기업에서 미국 조기암 선별검사 시장 진입 가능성을 보유한 글로벌 분자진단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5년 실적 리뷰

주요 제품 '아이캔서치'와 'G-NIPT' 검사 확대가 외형 및 이익 성장에 기여하며 턴어라운드 달성

동사의 2025년 실적은 **매출액 315억원(+21.8% YoY)**, **영업이익 12억원(흑자전환)**, **당기순이익 40억원(흑자전환)**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특히 상장 첫해부터 영업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기술특례 상장 진단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익성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출 성장은 전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이 있었지만, 특히 산과 검사와 검진 검사 부문이 견인했다. 2025년 **산과 매출액은 약 85억원(+30% YoY)**, **검진 매출액은 약 59억원(+36% YoY)**을 기록하며 전사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아이캔서치 검사 건수는 2025년 5,100건(+467% YoY)**, **G-NIPT 검사 건수 역시 2025년 25,200건(+40% YoY)**으로 확대되며 핵심 제품 중심의 매출 성장이 확인됐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는데, 매출총이익은 146억원(+25.0% YoY)을 기록하며 매출 성장률을 상회했고, 판관비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검사 물량 확대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배주주 당기순이익도 영업이익 개선에 더해 금융자산 처분이익 등 기타 금융손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며 흑자로 전환됐다.

이처럼 동사의 2025년 실적은 단순한 외형 성장보다 **사업 모델의 영업레버리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유전체 검사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검사 물량이 확보될 경우 장비, 인력, 분석 인프라 등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장 첫해 스타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2026년 실적 전망

G-NIPT와 아이캔서치 검사 물량 확대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2026년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배주주순이익 감소에도 본업 이익 체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동사의 2026년 실적은 **매출액 373억원(+18.3% YoY)**, **영업이익 32억원(+162.2% YoY)**,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42억원(4.2% YoY)**을 전망한다. 2025년 흑자전환을 통해 사업 모델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2026년에는 G-NIPT의 안정적 성장과 아이캔서치의 거래처 및 검사 건수 확대가 지속되며 본업 중심의 이익 체력이 한 단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년 1분기 동사는 매출액 74.4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하며 연초부터 영업흑자를 달성했고, G-NIPT 검사 건수가 7,000건(+40% YoY)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의 핵심 축 역할을 했다.

제품별로는 G-NIPT 검사 건수가 2025년 2.52만건에서 2026년 약 3.2만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고령 산모 비중 확대, 산전 정밀검사 수요 증가, 병의원 채널 내 높은 커버리지 등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2026년에도 20%대 이상의 물량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캔서치 역시 2025년 5,100건에서 2026년 1만건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1Q26 검사 건수는 1,400건(전년 동기 대비 2배 성장)으로 연간 1만건 목표 대비 낮아 보일 수 있으나, 건강검진 수요가 통상 연초보다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및 검진센터 채널 확대, 대기업 임직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B2B 검진 채널 중심의 반복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일본에서도 거래처를 넓히며 진출하고 있어 검사 건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검사 물량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사의 사업은 **검사 건수가 증가할수록 고정비 성격의 비용(매출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2025년 3.9%에서 2026년 8.7%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42억원으로 소폭만 증가될 전망이지만, 전년의 금융자산처분이익 등 일회성 영업외수익 기저를 감안하더라도 본업 이익 개선 흐름은 명확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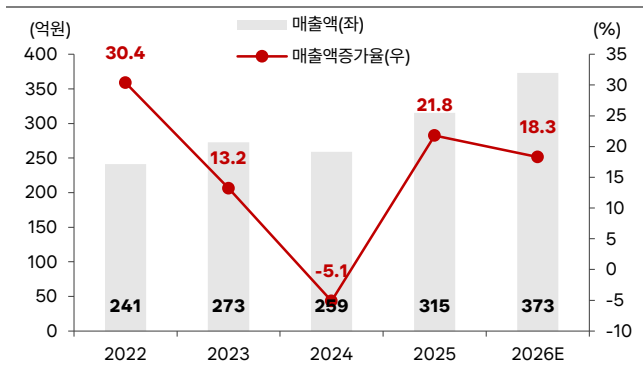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272.9	258.9	315.3	373
증가율 (%)	13.2	-5.1	21.8	18.3
산과 검사(G-NIPT 등)	52.7	65.2	84.6	108
암 검사(GreenPlan 등)	104.7	102.6	118.1	129
유전회귀	60.4	48.2	53.8	61
검진 검사(아이캔서치 등)	46.3	42.7	58.4	74
기타	8.9	0.2	0.5	1
판매관리비	135	129	134	143
판관비율(%)	49.5	49.8	42.5	38.3
영업이익	2	-12	12	32
영업이익률 (%)	0.6	적전	3.9	8.7
증가율 (%)	흑전	적전	흑전	162.2
세전계속사업이익	-8	-11	41	44
증가율 (%)	적지	적지	흑전	6.4
당기순이익	-6	-13	40	42
순이익률 (%)	-2.0	-4.9	12.8	9.4
증가율 (%)	적지	적지	흑전	4.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6	-13	40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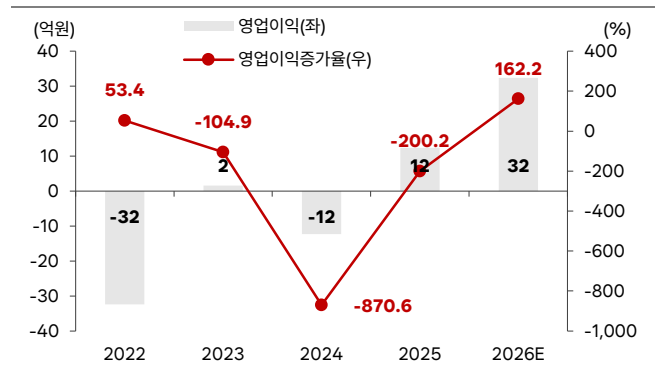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추이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동사의 현 밸류에이션은 상장 이후 밴드 하단에 위치해 부담이 제한적인 구간이며, 실적 성장과 PANC-CERCH 미국 FDA 마일스톤 확인 시 리레이팅 여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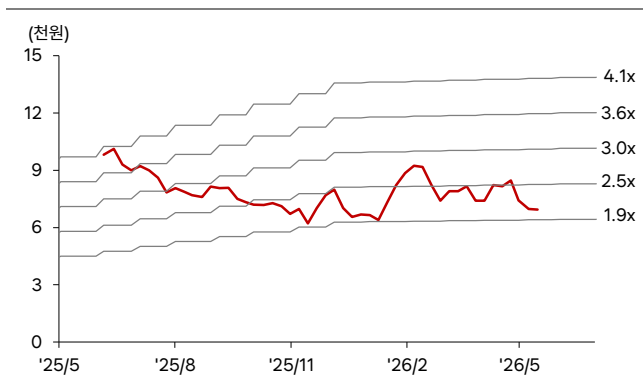
동사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은 **PBR 1.9x, PSR 4.3x**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5년 흑자전환 이후 2026년에도 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순이익 창출이 예상되나, 아직 순이익 규모가 초기 단계이고 영업외손익 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PER보다는 **매출 성장성과 자본가치 대비 기업가치 수준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PSR 및 PBR 중심의 밸류에이션**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상장 이후 현재까지 형성된 동사의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면, PBR은 1.9~6.6x, 평균 3.7x, PSR은 4.4~7.8x, 평균 5.5x 수준이었다. 2026년 예상 기준 PBR 1.9x는 역사적 밴드 하단에 근접해 있으며, PSR 4.3x 역시 상장 이후 밴드 하단 수준이다. 물론 동사는 상장 이후 거러 기간이 길지 않아 해당 밴드를 장기적인 적정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단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참고 밸류에이션 지표정도로 볼 수 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현 밸류에이션이 이미 상단부분 보수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인데, 2026년 매출 성장과 흑자 기조 유지가 가능하다면, 동사는 단순 기술특례 진단기업이 아니라 흑자 기반의 임상유전체분석 및 액체생검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G-NIPT 검사 건수 증가, 아이캔서치의 B2B 건강검진 채널 확대, PANC-CERCH의 FDA BDD 신청 및 승인 가능성 등 주요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확인될 경우, 현재 밴드 하단 수준의 PBR 및 PSR은 리레이팅 여지**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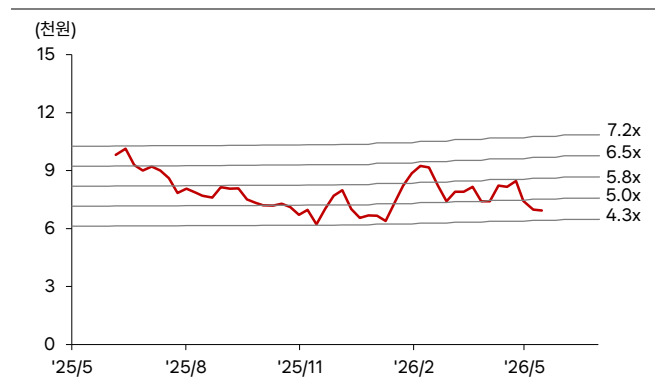
동사는 이미 주요 검사 제품의 상업화 매출과 흑자전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장 이후 밴드 하단에 위치한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 있다. PBR과 PSR 모두 역사적 밴드 하단에 근접해 있어 단기 **하방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2026년 실적 가시성과 미국 조기진단 시장 진출 모멘텀이 확인될 경우 기업가치 상향 가능성이 열려 있다.** 향후 추가 재평가의 핵심 변수는 **G-NIPT와 아이캔서치의 검사 건수 성장 지속 여부, 영업이익률 개선, PANC-CERCH의 미국 FDA 관련 마일스톤 달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씨지놈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지씨지놈 PS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동사의 리스크는 국내 중심 검사
매출의 절대 규모 확대 여부와
PANC-CERCH의 미국 FDA 및
보험등재 마일스톤 지연
가능성이며, G-NIPT &
아이캔서치 성장 지속과 미국 임상
및 허가 이벤트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

동사는 G-NIPT와 아이캔서치의 검사 건수 확대를 통해 2025년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026년에도 본업 중심의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성장세가 중장기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검사 매출의 절대 규모 확대와 PANC-CERCH의 미국 시장 진입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사의 매출 성장 동력은 G-NIPT와 아이캔서치의 검사 건수 확대에서 나오고 있으나, 현재 두 제품의 매출 기반은 아직 국내 시장 중심이다. G-NIPT는 국내 NIPT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아직은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국내 출생아 수와 산전검사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성장 상단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아이캔서치 역시 대기업 건강검진, 병원 및 검진센터 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프리미엄 선택형 검사 성격이 강하다. 현재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 매출 규모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검사 물량 증가와 함께 매출 증가가 보다 가파르게 실제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상향은 국내 검사 제품의 성장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고, 결국 PANC-CERCH를 통한 미국 체장암 조기진단 시장 진입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PANC-CERCH의 FDA BDD 신청, 지정, 미국 임상 종료 등은 단기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제 FDA 승인 및 보험코드 등재 같은 마일스톤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중장기 리레이팅 모멘텀은 약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처럼 동사의 리스크로는 국내 중심 검사 매출의 성장 속도와 PANC-CERCH의 미국 진출 마일스톤 지연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G-NIPT와 아이캔서치의 검사 건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PANC-CERCH의 미국 임상이 3분기에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타임라인에 맞게 종료 및 FDA 관련 신청 및 승인 이벤트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241	273	259	315	373
증가율(%)	30.4	13.2	-5.1	21.8	18.3
매출원가	133	136	142	169	198
매출원가율(%)	55.2	49.8	54.8	53.7	53.1
매출총이익	108	137	117	146	175
매출이익률(%)	44.6	50.2	45.2	46.4	46.9
판매관리비	140	135	129	134	143
판매비율(%)	58.1	49.5	49.8	42.5	38.3
EBITDA	-4	37	20	41	56
EBITDA 이익률(%)	-1.8	13.6	7.7	13.0	15.1
증가율(%)	적지	흑전	-46.3	106.6	37.0
영업이익	-32	2	-12	12	32
영업이익률(%)	-13.4	0.6	-4.8	3.9	8.7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흑전	162.2
영업외손익	-6	-10	1	29	12
금융수익	9	5	22	34	16
금융비용	18	15	10	4	2
기타영업외손익	3	1	-11	-1	-2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39	-8	-11	41	44
증가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6.4
법인세비용	-1	-3	1	1	2
계속사업이익	-38	-6	-13	40	4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8	-6	-13	40	42
당기순이익률(%)	-15.6	-2.0	-4.9	12.8	11.3
증가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4.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8	-6	-13	40	42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	33	4	13	68
당기순이익	-38	-6	-13	40	42
유형자산 상각비	27	35	31	28	23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1	1
외환손익	2	1	0	2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6	-13	-25	-40	6
기타	18	15	10	-18	-4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2	-125	31	-125	-11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0	-40	-12	-69	-3
유형자산의 감소	8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0	-74	-3	-3	-4
기타	104	-11	46	-53	-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	-9	-6	398	-0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404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7	-9	-6	-6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7
현금의증가(감소)	29	-100	29	286	49
기초현금	107	136	36	65	351
기말현금	136	36	65	351	400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241	145	137	510	585
현금성자산	136	36	65	351	400
단기투자자산	40	50	0	50	54
매출채권	42	43	54	70	80
재고자산	12	12	12	20	29
기타유동자산	11	5	5	19	22
비유동자산	248	283	270	337	331
유형자산	131	133	101	84	76
무형자산	6	5	5	5	4
투자자산	32	61	78	174	177
기타비유동자산	79	84	86	74	74
자산총계	489	428	406	846	917
유동부채	104	130	32	27	57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13	9	0	0	0
기타유동부채	91	121	32	27	57
비유동부채	119	48	43	36	35
사채	58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61	48	43	36	35
부채총계	223	178	75	64	92
지배주주지분	266	250	331	783	825
자본금	91	91	98	118	118
자본잉여금	210	210	299	688	688
자본조정 등	0	-0	0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	-11	-13	-12	-12
이익잉여금	-32	-40	-53	-11	31
자본총계	266	250	331	783	825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N/A	N/A	37.0	38.0
P/B(배)	0.0	0.0	0.0	2.1	1.9
P/S(배)	0.0	0.0	0.0	4.7	4.3
EV/EBITDA(배)	N/A	1.5	N/A	30.5	21.1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233	-30	-69	184	178
BPS(원)	1,466	1,381	1,692	3,310	3,488
SPS(원)	1,495	1,505	1,416	1,438	1,577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6.5	-2.1	-4.3	7.3	5.2
ROA	-8.2	-1.2	-3.0	6.5	4.8
ROIC	-34.9	-3.0	-8.3	5.9	18.1
안정성(%)					
유동비율	232.1	112.1	427.0	1,859.4	1,029.3
부채비율	83.9	71.0	22.8	8.1	11.1
순차입금비율	-19.1	22.5	-5.6	-46.1	-50.2
이자보상배율	-1.9	0.2	-1.3	6.3	17.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6	0.6	0.5	0.4
매출채권회전율	6.1	6.4	5.3	5.1	5.0
재고자산회전율	26.8	23.2	21.8	19.6	15.2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Table with 4 columns: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Row 1: 지씨지놈, X, X, X

발간 History

Table with 2 columns: 발간일, 제목. Row 1: 2026.05.27, 지씨지놈 - 여기 임상유전체와 액체생검은 공상과학이 아니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간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